

“풍력발전 2.0계획 제주에너지공사 역할·기능 모호”

“민간 사업자와의 관계 설정과 책임 소재 명확히 해야” 도의회 농수위, 조례 개정안 법적 근거 미흡 심사보류

제주도가 추진 중인 ‘풍력발전 2.0’ 계획이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 단계에서 ‘심사 보류’됐다. 농수위는 13일 제419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주지역에서 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할 때 제주에너지공사가 입지를 발굴하고 민간사업자를 우선 선

정한 뒤 컨소시엄을 구성해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지난해 말 개정안에 완전히 민간이 주도하는 내용을 담았다가 비판 여론이 일자 ‘공공 관리기관’이 참여하는 안으로 수정했다.

농수위 의원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제주에너지공사의 역할과 기능이 모호하고,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봤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에너지공사는 공기업이라 현재의 조례로는 에너지공사가 조례에서 명시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에너지공사 조례도 같이 수정해서 들어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공공적 관리’ 역할을 위임받는다면 ‘위탁사무’와는 다른 개념”이라며 “그 사무에 대해 조직이나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의 내용도 같이 제출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송산·효돈·영천동)은 이번 개정안으로 “사업을 진행하기에 속도감은 좀 있겠다”면서도 “에너지공사의 역할이 참 애매하다. 컨

소사업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에너지공사가 관리·감독을 하고 그 다음 시행에 따른 책임을 정확히 물을 정도로 관리할 것인지, 사업에 직접 참여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갑)은 “이제 공사는 용역 업체로 전략하게 됐다”면서 “에너지공사를 인허가 절차 허거나 도움 센터로 전략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농수위는 결국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최종 심사보류시켰다. 조문호 기자

도축장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 ‘심사보류’

도의회 농수위, ‘형평성문제’ 명분 대표 발의한 고태민 의원은 반발

제주도의회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갑)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축장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심사 보류’됐다.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 의원들은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다른 기피시설 지역과 형평성 등을 우려한 도집행부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이번 조례안 심사는 시작부터 신경전이 벌어졌다.

농수축경제전문위원실 검토 결과 보고에서 도축장을 ‘민간시설’로 규정하자 고 의원은 “공공시설이 아니라고 어떻게 단정하느냐”고 따졌다. 고 의원은

“도축장 운영 주체가 농협중앙회 산하 조직이다. 국가기관에서 투자한 정부투자기관이 운영을 하는 것”이라며 “사회적 기반시설이고 공익시설”이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도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과 치열한 찬반 논쟁을 벌였다. 고 의원은 “도축장은 사회 기반시설로 환경기초시설보다 우위에 있다”며 “민간시설”이라는 시각에 문제가 있음을 주장했다.

고 의원은 이어 “조례가 잘못돼서 악성 조항이 있거나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평등의 원칙에 문제가 있으면 재의 요구를 하면 되는데 전반적으로 부정을 해버리면 도의원의 입법활동이 위축된다”며 “형평성 문제 제기에 불편한 심경을 시사했다.

문경삼 국장은 이에 “법무 부서 의견으



13일 제41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질의응답 중인 고태민 의원(왼쪽)과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 [사진=제주도의회]

로는 1개 조문이 법률에 위임이 없는 사항을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다”고 맞섰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지역구에서 지난해 관련 악취 민원이 18건 있었던 점을 들며 “공공시설은 아니지만 문제해결 방법을 찾아줘야 한다”며 “실태조사를 하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거들었다.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송산·효돈·영천동)은 지원 필요성을 논하면서도

“주민들이 힘들어해서 말한 부분이기여 검토는 해주어야 한다”며 “주민들 상대로 (조례 도입이 어려운 점을 포함해) 설명도 잘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추자면)도 “지역주민과 소통을 더 많이 하라”고 요청했다.

고 의원은 도집행부의 입장에 못마땅해 하며 “도지사와 직접 면담을 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조문호 기자

FFF JEJU 제5회 농촌융복합 제주국제박람회
2023 K-농촌융복합산업 국제포럼

2023. 7. 21 금
7. 22 토
7. 23 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푸드테크 & 농촌융복합산업 제주국제박람회

푸파페 제주를 즐기기 위한 CHECK LIST!

- 최고의 '메이드인제주'만 모인 마켓 플레이스
청년농부 장, 로컬푸드, 전통주, 화장품, 커피, 와인 등 맛난 먹거리와 제품 푸짐
- 직접 보고 만들고 즐기는 온가족 참여 가능한 체험공간
다양한 만들기와 곤충 체험, 건강한 메밀 풀장, 간식과 음료까지 온가족이 즐겨요
- 푸파페 제주의 하이라이트는 팜팡 쏟아지는 선물
푸파페 OX퀴즈 한마당, 매일 100명에게 쏘는 영수증 이벤트, 그 외에도 푸짐한 선물 이벤트까지
- 푸드테크 & 농촌융복합산업 글로벌 전문가 총출동
국내는 물론 일본 미국 브라질 등 농촌융복합산업 국제전문가가 모인 국제포럼도 주목

사전등록 이벤트 참여하면 당첨자는 현장에서 선물이 와르르!

푸파페 제주 참관객에게 제공하는 경품 이벤트! 추첨을 통해 당첨자는 현장에서 상품 지급

홈페이지사전등록

공식 인스타그램

* 이벤트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식 SNS 참여를 위해 미리 사전등록 및 인스타그램 팔로

주최 **Jeju**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주관 **b**: (사) 제주농업농촌진흥원 제주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사단법인 제주6차산업협회

후원 농림축산식품부 미디어 파트너 제주 CBS